

방학 중 자녀 돌봄, 유연근무로 해결해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례 선정·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방학기간 유연근무 활용 경험 공유 이벤트’를 실시하고, 그중 우수사례를 선정·발표했다. 곧 다가올 여름 방학을 앞두고 자녀 방학 기간에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이번 이벤트는 고용부가 지난 3월 개최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서 청년 2030 자문단이 제기한 “자녀 방학 때 유연근무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가 계기가 되었다.

이벤트에는 총 170명이 참여했다.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었고, 학기와 달리 방학 때는 육아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만 되면 육아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의견, “아이 혼자 집에 두고 밥 차려 놓을 테니 먹으라고 하기에 는 날도 덥고 위험해 보인다”는 의견, “하루 종일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저녁에 집에 오면 TV와 게임에만 빠져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는 의견 등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방학 걱정이 태산이었다.

사례에는 이런 걱정과 어려움을 유연근무를 통해 극복한 다양한 경험담이 제시되었다. 유연근무로 육아 걱정을 덜어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이 증가했고, 아이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가족 간의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워킹대디 문○○씨는 코로나 이후 도입된 재택근무를 활용했다. “아이들 아침 챙겨주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출근 완료입니다. 콩나물시루 같은 대중교통 속 고통도 없고, 특히 오후에 아이들 학원 보내면 집중근무가 가능해요. 1주에 2일 재택이지만 다행히 아내와 번갈아 재택이 가능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유연근무가 도입되지 않은 회사에서 자녀를 둔 직원을 배려하여 유연근무를 허용한 사례도 있었다. 네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맘 박○○씨는 남편과 엄마가 도와줬지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건 유연근무라며, “회사에서 저의 사정을 알기에 출근 시간을 조정해 주었고, 일주일 정도는 재택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었어요. 직장에서 유연근무를 허락해주지 않았다면 애들 때문에 그만뒀다가 힘들게 다시 얻은 직장을 또다시 그만두었을 거예요”라며 고마워했다. 초2 아들을 키우는 정○○씨는 “조그만 회사라 늘 인력이 부족해서 유연근무는 생각조차 못 했는데, 사장님이 방학 때는 재택근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해 주셔서 방학마다 재택근무하고 있다”라며 만족해했다.

한편 회사에 적극적으로 사정을 얘기하고 상의해서 유연근무를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두 아이의 아빠인 이○○씨는 “아이들이 방치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인사팀과 상의한 끝에 재택근무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라며, “오전에 재택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두 아들을 둔 워킹맘 이○○씨는 시차출퇴근을 활용했다.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삼시세끼 모두 차려 먹어야 하는데, 유연근무로 한 두 시간 늦게 출근하는 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침밥 챙겨주고 점심까지 준비할 수 있었고, 아플 때는 병원 진료 후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제가 늦게 퇴근하면 정시퇴근한 아빠가 저녁을 챙기는 등 육아를 분담하여 방학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제출된 사례 중에서 1등 1명, 2등 10명, 3등 40명을 선정하여 간단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는 인스타툰,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방학 시즌 일하는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면서, “정부도 장려금·인프라·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유연근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육아 병행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방학 시즌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례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장현석 (044-202-7496)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조영 (044-202-7506)



우수 사례(요약)

<문○○, 1등>

일년에 두번, 직장 생활을 하는 부모님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자녀들의 방학. 하지만 코로나 이후 본격 도입된 재택(원격)근무 덕분에 이제 그 부담을 덜 수 있게 됨. 아이들 아침을 챙겨주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바로 출근 완료, 아침,저녁 한시간반 콩나물시루 같은 대중교통 속 고통 없이 일할 수 있어 좋고, 경쟁이 치열한 회의실을 예약할 필요 없이 바로 화상으로 회의하는 건 덤. 온라인으로 연결만 되어 있다면 언제나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 사무실 분위기에 상관 없이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사무실.

바쁘게 오전 근무를 마치면, 아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점심을 할 수 있는 것은 더할나위 없는 즐거운 일. 오후에 아이들 학원을 보내고 나면 오롯이 나만의 집중근무 모드! 사무실이였다면 나쁜 오후 커피타임, 담배타임, 회의실 이동 등으로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시간도 원격 근무에서는 신경 쓸 필요 없음.

오후 업무를 마치고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가족과 함께 하는 일상이 시작됨. 아이 감기나 치과 진료가 필요하면 5시쯤 업무를 마치고 예약해 둔 병원으로 함께 갈 수 있어 연차를 굳이 내지 않아도 되어서 좋고, 아이들과 장을 보거나 동네 산책을 하기도 함. 퇴근 후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는 아내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남. 일주일에 2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 아내와 번갈아 재택근무를 하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이제 방학도 안심. 육아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재택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램.

<박○○, 2등>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맘임. 첫째, 둘째 때 일과 병행이 힘들어 잠시 그만두고 육아만 전념할 때도 있었지만 셋째, 넷째를 쌍둥이로 낳았을 때는 어렵게 다시 얻은 직장을 그만두기가 싫었음. 남편도 엄마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었지만 가장 힘이 되었던 건 유연근무임.

특히 방학이면 더 힘들어지는 육아인데 회사에서 저의 사정을 알기에 출근시간을 조정해 주었고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일주일의 시간은 재택근무를 통해 회사 업무를 이어갈 수 있었음. 더 다행인건 남편 직장에서도 재택근무를 허용해줘서 둘이 번갈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음.

방학시즌 자녀 돌봄 걱정은 직장에서 이해해 주고 걱정해 주셔서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로 덜어낼 수 있었음. 그때 직장에서 유연근무를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또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

<정○○, 2등>

초2 아들을 키우는 맞벌이인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초등학교 입학 후 방학 때만 되면 걱정이 많아졌음. 학기 중에는 방과후 끝나면 학원 두 군데 정도 보냈는데 방학에는 학원을 추가로 다니자니 아이도 힘들어할 테고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았음.

남편직장은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 아니어서 연차 쓰기도 눈치 보이고 출퇴근시간 조정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 직장은 인력이 부족한 곳이라 유연근무 생각조차 못해봤는데, 저희 회사 사장님이 아이 곧 방학인데 봐줄 사람은 있냐 물어보시면서 방학 때는 재택근무 들어가는게 좋지 않겠냐 먼저 제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방학기간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음

아이 낳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 아이랑 평일에 붙어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처음으로 한 두달 정도 같이 지내면서 숙제도 봐주고 아이와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유대감도 쌓이는 것 같아 너무 좋았음. 작은 회사라 복지가 너무 없다 생각했었는데 먼저 이런 제의를 해주셔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다닐까 싶을 정도로 오래오래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었음.

<이○○, 2등>

작년 여름 초등학생인 두 아이가 방학을 맞이했을 때 아이들이 방치된다는 불안감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해 보기로 결심함. 처음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인사팀과 상의한 끝에 재택근무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선택함.

유연근무 도입 전에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는데, 도입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간단한 독서나 놀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후 오전에는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사무실로 출근해 중요한 회의나 협업을 진행하였음.

유연근무를 통해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잠깐의 대화와 간식을 챙겨주면서 가족의 유대감이 강화되었고, 집에서 조용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사무실보다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졌고, 회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향후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는 기회를 얻게 됨.

유연근무는 단순한 근무 형태의 변화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이며, 특히 자녀 돌봄에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임을 확인함.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할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임.

<이○○, 2등>

저는 초 2학년, 4학년 남자아이를 둔 워킹맘임. 둘째 초1 때, 큰 맘 먹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운 좋게 경력단절을 끊고 일을 시작함. 학기 중에는 학교도 가고, 학원도 다니니 집에 돌아와 잠깐 시간을 보내면 금방 엄마 아빠가 퇴근을 하는데, 방학기간 중에는 하루종일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삼시세끼를 차려먹고 시간 스케줄에 따라 학원 등하원을 스스로 해야 하는게 가장 걱정이었음. 특히 겨울방학은 길고, 야외활동이 어려워 더욱 신경이 쓰임.

그럴 때, 유연근무를 활용하여 한두시간 늦게 출근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음. 아이들 아침밥을 챙겨줄 수 있고, 점심도 함께 준비해서 알려주었고, 콧물이 나거나, 열이 날 때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출근할 수가 있어 너무 좋았음. 제가 조금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 정시에 출근한 아빠가 정시퇴근 후 집에 와서 아이들 저녁을 챙기거나, 아픈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육아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2달 가까이 되는 겨울방학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음. 유연근무가 없었더라면, 어렵게 이룬 경력단절의 취업을 포기했을 것임

<조○○, 2등>

1녀(10살) 1남(5살)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학교와 어린이집 방학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음. 방학기간 보육도우미를 부르거나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저와 아내는 6시반 출근, 7시 이후 퇴근으로 도우미분들을 구하기도 어렵고, 급여도 부담스러운게 사실임. 저와 아내가 번갈아 휴가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눈치가 보이는 것이 현실임.

고민하던 중 마침 저희 회사에서 방학기간동안 가족돌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회사에 자녀를 데리고 출근하거나 재택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음. 자녀를 데리고 출근하여 마음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었고, 자녀들도 또래끼리 어울려 행복해 하였음.

자녀를 매번 데리고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에서 편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근무를 사용하므로 보육도우미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 사용으로 인한 동료 직원들에게 미안한 맘도 해소할 수 있었음. 유연근무로 자녀돌봄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편한 마음 때문에 업무 효율성까지 생겨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음.

<안○○, 2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급히 출근하는 일상에 쫓겼고, 방학이 되면 아이들의 안전과 식사 걱정, 하루 종일 TV와 게임에 빠져 지내는게 마음이 무거웠음. 퇴근 후 아이들과 질 좋은 시간을 보내기는커녕,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안일과 숙제를 도와야 해서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를 약화시키고, 저의 업무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었는데, 작년부터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달라졌음.

저는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을 병행하여 아침에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온라인 수업에 집중할 때 저도 집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회사에 출근해 필요한 미팅을 진행하고,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과 저녁을 준비했음.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게 너무 좋았음.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TV,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지 않고, 업무와 가정생활 사이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음. 유연근무제는 저희 가족에게 큰 선물임.

<김○○, 2등>

요새 학교들은 방학기간 학교 공사를 하면서 긴시간 휴일을 갖는데, 직장맘들은 대책이 없음. 방과후, 돌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이들만 집에 두자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고, **더운 여름에 음식이 상할까 걱정이고 데워먹으라고 하는 것도 뜨거운 불에 다칠까 조심스러웠음.**

부모의 보살핌은 어린 유아나 저학년에게만 필요한게 아니고, **청소년기에도 필요함.**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함께 돌봐주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재택근무나 단축근무를 통하여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음.**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삼시세끼 챙겨줄 수 있어서 감사했음.** 출근 간에 쫓겨 겨우 챙겨 주고 가던 아침 식사였는데, 따뜻한 밥에 국이라도 더 챙겨주었고, 점심 때 한끼라도 골고루 먹이고 중간에 과일도 먹이고 저녁도 부랴부랴 와서 겨우 해먹이는데 아니라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음. **모든 시간이 근무시간 제외하고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을 내서 하는 거라서 업무에도 지장이 없으며**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음.

<이○○, 2등>

두 아이의 아버지자 맞벌이 가정으로, 방학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하루종일 집에 있게 되어 돌봄 공백이 큰 걱정거리였음. 그런데 작년 여름방학 때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주 2회 재택근무와 나머지 3일은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했음.**

재택근무하는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안심되었고, 틈틈이 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음. 아이들과 함께 아침과 점심을 함께 먹고, 숙제를 도와주거나 놀이시간을 함께하며 많은 교감을 나눌 수 있었음. 출근하는 날에는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고, 퇴근 시간을 오후 7시로 조정하여** 아침에 아이들과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음.

유연근무제는 워킹맘&워킹대디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임. **회사업무에도 전혀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 것**을 느꼈음. 집에서 일할 때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아 업무 시간에 최대한 집중했고, 출퇴근 스트레스도 줄어들었음. 특히 방학기간 동안 자녀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어 **가족의 유대감도 강화됨.**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람

<송○○, 2등>

유연근무 도입 전, 저는 방학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음.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걱정도 많아졌고, 아이들과의 질 높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려웠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조정**하여 아침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 또한, 근로장소를 조정하여 **재택근무를 병행하여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며, 아이들의 외부 활동에도 동행할 수 있었음.**

유연근무 도입 후, 업무와 가사, 육아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이 높아졌음. 아이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지면서 가족간의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었음. 유연근무제는 단순히 근무 시간이나 장소의 변경을 넘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음

<조○○, 2등>

작년 여름, 자녀들의 방학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의 일상적인 돌봄과 활동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였는데 직장에서 제공하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큰 도움이 됨.

오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활동을 시작할 때쯤 집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처리함. 주 2회 재택근무를 통해 아이들과의 시간을 더욱 늘려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꼈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음.

유연근무제 덕분에 **업무 효율도 높아짐.** 자녀들과의 시간을 통해 정신적으로 재충전되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 또한, 업무 중간중간에 자녀들과의 짧은 휴식을 취함으로써 긴장감도 줄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함.

결론적으로, 자녀 방학기간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경험은 단순히 시간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업무와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음